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12>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장 구연(具緣)

악업은 苦果, 선업은 樂果를 알았다면 지극한 참회로 죄업 소멸해야

三者若人受得戒已不能堅心護持 輕重諸戒 多所毀犯 依大乘教門 即無懺悔四重之法 若依大乘教門 猶可滅除

여기에서는 삼품인 가운데서 하품인이 지계하는 모습을 밝히고 있다. 하품인은 계율을 받고 나서 일체 계법에 있어서 끝까지 견고한 마음으로 보호하고 지니지를 못한다. 하품인은 무거운 죄나 가벼운 죄를 논할 것 없이 파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마치 사람이 머리가 잘리면 결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과 같다.

가령 소승교문을 의지한다면 무거운 죄는 참회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두고 "천불이 출세해도 참회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대승교법을 의지한다면 무거운 죄라도 참회할 방법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대승법문이야말로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故經云佛法有二種 健人一者不修惡二者作已能悔 이 문제를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법엔 두 종류의 건강한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종일토록 선명하고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일체 악업을 짓지 않는 경우인데 이 사람이 세간에서 첫 번째로 건강한 사람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과거를 하고 나서도 능히 참회할 수 있는 사람이다. 평소에도 모든 악업을 지었다 해도 지은 뒤에 자기의 과오를 회개하고 자책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개혁하여 다시는 새로운 죄업을 짓지 않는 경우인데 이 두 역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선견에 맹목하고 지혜력이 강건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끝내는 깨달음을 증득한다. 그 때문에 불법 가운데서 이들 두 종류의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

夫欲懺悔者 須具十法 助成其懺 가령 모든 악업을 지은 사람이 참회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열 가지 법을 구족하게 갖추어 참회의 공부를 보조하고 성취해야 한다.

一者明信因果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인과응보는 실날만큼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밝혀 악업의 원인은 괴로움의 과보를 부르고, 선한 종자는 즐거움

의 과보를 부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는 흔히 세속에서 말하는 공 심은 곳에 공이 나오거나 혹은 유심으로 했거나 무심하게 행했던 이러한 등의 지은 죄업을 삼보를 마주하거나 혹은 대선지식을 마주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드러내고 애절한 마음으로 참회를 구해야만 한다. 이렇게 참회할 수 있다면 그 죄업은 즉시 소멸하겠지만 자기의 죄업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 속에 숨겨둔다면 그 죄업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진다. 그럴 경우 그 죄업의 뿌리는 더욱 견고하게 맺혀 참회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된다.

二者生重怖畏 두 번째는 악업의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악업의 결과를 불러들여 결국은 지옥으로 타락하여 극도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크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내어 모골이 송일 해져야 한다. 이것은 이른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마치 깊은 연못가에 서 있는 듯이 하거나 또는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해야 한다'고 한 경우이다. 악업의 원인이야말로 지극히 두려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극도의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서 행해야만 한다.

三者深起慚愧 세 번째는 죄업을 지으면 부끄러운 마음을 깊이 일으켜야 한다.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함은 자기와 타인에게 모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는 계를 파할 만큼 근기가 허약함을 부끄러워하고, 다시 모든 훌륭한 사람은 계율을 잘 지음으로서 청정하게 해탈한 훌륭한 모습에 이미 도달하였는데 자신은 아직 그렇지 못함을 참회해야만 한다. 즉 바꾸어 말하면 석가부처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성불했으며 나는 어찌하여 장구한 세월동안 증생으로 있는가 하는 점을 반성하여 훌륭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와 같이 돼야만 되겠다고 하는 마음까지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크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고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통렬하게 고치게 된다.

四者求滅罪方法 所謂大乘輕重明罪者行法 應當如法修行

네 번째는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만 하는데 반드시 어디에서나 항상 자기 죄업을 소멸할 방법을 구해야만 한다. 어떤 법이 죄업의 장애를 제거하고 소멸할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대승경전에 밝힌 '모든 참회를 향하는 법을 법답게 수행해야만 한다'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五者發露先罪 다섯 번째는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업을

숨기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야만 한다. 가령 과거에 지었던 모든 악업을 자신이 알거나 모르거나 혹은 유심으로 했거나 무심하게 행했던 이러한 등의 지은 죄업을 삼보를 마주하거나 혹은 대선지식을 마주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드러내고 애절한 마음으로 참회를 구해야만 한다. 이렇게 참회할 수 있다면 그 죄업은 즉시 소멸하겠지만 자기의 죄업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 속에 숨겨둔다면 그 죄업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진다. 그럴 경우 그 죄업의 뿌리는 더욱 견고하게 맺혀 참회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된다.

六者斷相續心 여섯 번째는 죄업이 상속하는 마음을 끊어 아만 하는데 가령 죄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삼보 전에 참회하고 나서도 그 죄업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상속하면서 악업 짓는 일을 단절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비록 참회했다 할지라도 전혀 이익이 없다. 앞으로 상속해서 일어날 죄업을 절단하기에 힘이 들면 그때그때의 인연 따라서 지난 죄업을 소멸하고 다시는 새로운 재앙을 짓지 않아야만 된다. 때문에 참회하고 나서 새롭게 상속하는 죄업의 마음을 반드시 단절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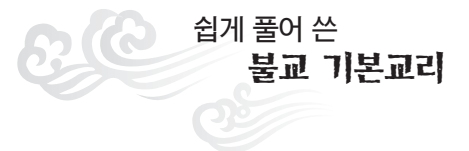
七者起善法心 일곱 번째는 법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불법을 호위하겠다는 생각을 받기 해야만 한다. 가령 자기가 불법을 받들면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게 되고 또 타인이 불법을 공격하면 타인과 함께 불법을 보호하게 해야만 한다. 가령 자신이나 타인 모두가 불법을 유지하고 보호한다면 복을 얻고 죄를 소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불법을 보호 유지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만 한다.

八者發大誓願 度脫眾生 여덟 번째로는 커다란 서원을 일으켜야 하는데 즉 사홍서원을 발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이없는 증생을 맹세코 제도하리라. 끝없는 번뇌를 맹세코 끊으리라. 한량없는 법문을 맹세코 배우으리라.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성취하리라'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바로 자리아타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을 일으켜 일체중생을 제도하면서 아상과 인상 또는 상대방과 나라는 생각을 본별하

지 않고 상대방의 괴로움은 바로 나의 괴로움이므로 급히 그 괴로움에서 구제해주어야 하며 상대방의 즐거움은 바로 나의 즐거움이므로 재빨리 그와 함께 즐거워해주어야 한다. 상대방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바로 자기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되며 상대방에게 안락함을 부여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의 즐거움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사홍서원으로 자리아타를 병진하는 큰 덕목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행해야만 증생을 구제한다는 서원을 실제적으로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이라 함은 맹세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서 그 마음을 실현하려해야만 하며 원력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을 경계하면서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아야만 광대한 서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역시 죄업마저 소멸할 수 있다. 서원의 궁극적 목적은 끝내 이고득락을 자리아타로 성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nia.com/community/song



번뇌의 종류-진심②

2) 경계진(境界瞋)

중생들은 타인인 유정들에게 진심(瞋心)을 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경계까지도 진심이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경계진'이라고 합니다. 경계진은 '유정진'의 또 다른 변형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처해있는 환경, 즉 살고 있는 집과 다니는 직장,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소유했던 물건까지도 파괴하게 됩니다.

가령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벌하게 되면 그 국가 사람들이 정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국가의 모든 시설물마저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유정진이 극도로 상대하여 끝내는 경계진에까지 이른 것인데, 그 때문에 유정진이 한번 일어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의 경계까지 원망이 미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그 어떤 세력보다도 중요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3) 견진(見瞋)

견진은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견해 이외에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견해만 옳다고 집착하게 되면 자기와는 다른 타인의 견해는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종교 간의 전쟁이나 문벌 간의 치열한 투쟁이 모두 이를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견진도 역시 유정진 가운데서 그 작용이 특 징적으로 다르게 드러난 측면만을 따로 구별해서 말한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 견진은 앞서 '탐심' 가운데서 마지막 여덟 번째로 열거했던 '견탐', 즉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과 서로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견탐과 견진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견해만을 옳다고 방언(放任)하고 이를 모든 시비의 기준으로 삼는 지극히 아집적이고 감상적인 자기만의 논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은 항상 올바른 진리를 정당하게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세간의 모든 시비가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로 통일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좋은 만남 멋진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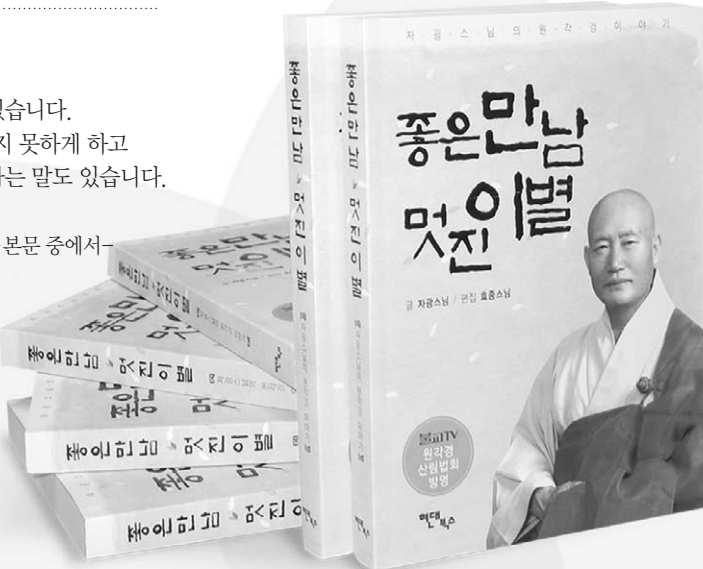
글 자광스님 / 평가 10,000원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심만의 국토를 지나 왕생 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범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나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숨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형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심상사 주지 · 前) 화양산 범암사 주지 · 前) 오달산 김릉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前) 현재 김릉사 회주 · 前) 현재 문경불교대학 학장 · 前) 자광스님의 중도가(證道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출판

현대 불교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노래방기기 설치



휴대용 중전식 유 · 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 두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원복비 A/S보장 · 100% 환불보장